



## 가업으로 잇고픈 목장, 목장경영전문화교육에서 길을 찾다.

낯선 곳에 혼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의지할 누군가가 필요했던 나는, 작년에도 “여성낙농인 목장경영 전문화 교육 기본과정” 신청을 해놓고도 참석하지 못했었다.

### ▶ 2017년 12월 15일

올해도 남편의 권유가 있었지만, ‘나 혼자 가서 괜찮을까?’하는 걱정이 앞섰고, 작년에 교육을 받은 언니를 통해 시험을 본다는 말을 듣고는 잔뜩 겁을 먹어 곧바로 참가 신청을 못하고 망설였다.

### ▶ 2018년 1월 10일

낙농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던 내가 결혼해서 남편을 도와 목장에서 일을 시작한지 이제 고작 4년차인데 여성낙농인 목장경영 전문화 교육이라니 어찌 거부감이 안들겠나! 교육 주제가 뭔가 어렵게 다가와 부담이 컸던 것 같다.

### ▶ 2018년 1월 15일

우여곡절 끝에 참가 신청을 하고 대전에 있는

교육장(선샤인호텔)에 가보니 우려와 달리 또래의 젊은 교육생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남편을 따라 여러 교육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후계 여성낙농인을 만나기란 하늘의 별따기였는데, 둘러보니 다른 교육에 갔다 만났던 언니들도 상당히 많아 한결 편한 맘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지영  
(경기 안성 이매목장)

2박 3일간 교육일정표를 보니 마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듯 시간이 뻑뻑해보였다.

교육의 첫 주제는 낙농경영이었는데, 교육내용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이해가 쉽게 되지 않아 “그냥 듣고 있었다”가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이렇게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이튿날 아침이 찾아왔다.

둘째 날은 첫날 교육내용을 토대로 각 조별로 꿈의 목장을 설계하고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경영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직접 부딪혀 보니 확실히 첫날 보다 훨씬 이해가 쉽고 재미있었다.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 웃음이 끊이지 않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두둥! 드디어 평가의 시간. 시험은 언제나 떨린다. 마지막날은 생활예절과 목장의 번식관리에 대해 배웠다. 예절에 대해 다시 한 번 다지고, 부족했던 부분과 몰랐던 예절에 대해 배우고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전날 본 시험의 결과 발표가 있었다. 야~호~!! 다행히도 성적은 상위권이였다!

수료식을 끝으로 2박 3일의 모든 교육이 끝이 났다. 처음 교육 일정표를 보았을 때의 긴장과 뻑뻑한 느낌은 어느새 사라지고, 아쉬움이 자리잡았다.

내가 목장에서 하는 일은 남편과 함께 착유하는 일 외에 목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기록하는 일이다. 작년 1월부터 목장일지를 꾸준히 작성하고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경영에 대해 막연히 “어려운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영은 의외로 아주 가까이

있었다. 바로 “기록”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우리 목장은 할 아버지와 아버지를 거

쳐 남편이 3대째 목장을 경영하고 있다. 아버님께서 목장을 그만 두시려다 남편이 목장을 이어나가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목장을 경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지금의 목장을 가업으로서 나도 나의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 가업으로서 가계의 기업으로서 부족하지 않게 탄탄한 경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영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를 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싶어 심화과정도 신청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낙농여성인, 낙농 2세대들이 많이 참여해서 교육이 더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교육여건도 좋았다. 오로지 학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실과 숙소, 식사까지 삼박자가 완벽에 가까운 최적의 공간이었고, 시간 시간 피곤할 교육생을 위해 다과도 준비해 주셨는데 교육 내내 모든 것에서 교육생에 대한 배려가 느껴졌다.

2박 3일 동안 열심히 가르쳐주신 나현채 강사님과 교육생들 챙겨 주시느라 애쓰신 협회 관계자 분들, 함께 교육받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